

생활에서 커뮤니티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중요하다. 이는 보다 지속 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돕는다. 지역 이야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말레이시아 조지타운의 사례와 대만 타이난 시의 예를 포함하여 문화가 어떻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유용한 사례들이 몇 가지 있다. 이러한 흥미로운 사례들은 종종 네트워크 활동을 통한 대안적인 실행방식을 제시한다. 마찬가지로, 인도네시아 반둥과 태국 치앙마이의 사례는 지역 네트워크에 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거버넌스가 어떻게 구상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많은 장들이 문화 관련 정책 업무를 재편하는 데 있어서 기술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것은 문화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감시를 통한 통제의 형태로서 문화의 역할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특히 흥미롭다.

이 책은 아시아의 상황을 보여주는 시의적절한 책이며, 서구 이외의 지역에서는 많이 늦어졌던 지역 문화 거버넌스에 대한 자기 성찰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보완해야 할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은 아시아 지역 전체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으며, 일부 국가의 사례들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 편중되어 있다. 흥미롭게도, 단일 도시나 지역에만 초점을 둔 비교 논문이 거의 없다. 게다가 이 책에는 매우 이질적인 조건에서의 자료들을 일반화시키고 비교의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다. 몇몇 글들은 또한 연구 지역을 홍보하는 것으로 변환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 책은 동양에서 도시정책으로 문화 활용이 어떻게 구상되는지를 이해하도록 해주는 훌륭한 초보서이다. 지구상의 이 쪽 지역에서의 성장 추세를 탐구하는 것은 매우 필요한 작업이다.

서 평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속가능한 관광 교육자료 리뷰

정진성*



By UNESCO. Paris: UNESCO, 2018.

(Available online: <http://whc.unesco.org/sustainabletourismtoolkit>).

영화 『인디애나 존스-최후의 성전』에서 고고학자인 인디애나 존스 박사(해리슨 포드 분)는 예수가 최후의 만찬 때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술잔 '성배(Holy Grail)'를 찾기 위해 중동 오지의 고대 신전을 찾아간다. 좌우의 붉은 절벽을 사이로 1킬로

* 정진성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문화팀 팀장, 성균관대학교 문화융합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하고있다.



미터 이상 이어진 협곡을 지나 마주한 알카즈네(Al-Khazneh)를 바라보면서 주인공은 탄성을 지르며 경외감을 느낀다.

베두인의 말로 ‘보물’을 의미하는 알카즈네는 바위 절벽을 통째로 깎아 만든 경이로운 페트라 유적의 대표적 건물로서 기원전 4세기부터 서기 1세기까지 존속했던, 지금은 사라진 나바테아 문명의 흔적을 보여준다. 1,500년 이상 협곡에 가려진 채 잊혀졌던 페트라 유적은 1812년 27세의 젊은 스위스 청년 요한 루트비히 부르크하르트(Johann Ludwig Burckhart)에 의해 발견되면서 다시 세상에 알려졌고 198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

국토의 80%가 사막인 요르단에서 관광산업은 전체 산업의 50%를 차지할 만큼 요르단의 중요한 기간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페트라 유적은 아카바, 와디르프와 함께 요르단 관광산업의 핵심지역으로 분류된다. 이처럼 문화유적을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은 전 세계 관광산업의 40%를 차지하는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산업

분야로서 세계 각국은 문화관광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발전 및 환경 개선, 유산 보호 등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국의 유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나라의 등재 추진 의도를 보면, 해당 유산의 등재를 통한 유산의 보호라는 목적 외에도 유산의 등재를 계기로 국가적 이미지를 높이고 해당 지역의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며, 더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임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이 더 솔직한 이유라는 것을 종종 목격하게 된다.

하지만 유산의 관광 자원화 노력은 때때로 원천 자원인 유산의 심각한 훼손으로 이어지거나 유산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동시에 유산의 관광 자원화를 통한 혜택이 유산지역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고 외부 투자자 혹은 기업의 몫으로 돌아가기도 한다.

198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인도 아잔타 석굴은 기원전 2세기부터 7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동굴형태의 사원인데 그 안에는 불교에 관한 다양하고 아름다운 벽화들이 그려져 있다. 오랜 시간 동안 잘 보존되어왔던 벽화들이 일반에 공개되고 관광객들의 발길이 잦아지면서 일부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기도 했다.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도시 전체가 특별한 건축 걸작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만 해도 과잉관광(Over-tourism)의 대표적 장소로 지목되던 곳이다. 베니스에 사는 실제 거주 인구는 약 5만 5천 명에 불과하지만 한 해 평균 2천만 명의 관광객들이 이곳을 방문했고 일평균 방문객도 실 거주 인구의 두 배가 넘는 12만 명이나 되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베니스에 사는 원주민들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워졌다. 관광객으로 인한 상시적인 교통 혼잡과 거리 곳곳에 버려지는 쓰레기, 관광객의 입맛에 맞춰진 식당과 서비스, 과도하게 관광 분야에 집중된 직업의 편중 등은 정상적인 삶을 원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베니스를 떠나게 만들기도 했다.

잉카제국의 절정기에 건설된 페루의 마추픽추 또한 경이로운 문명의 흔적으로서 전세계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유네스코는 마추픽추 역사보호지구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일평균 적정 관광객을 2,500명으로 제한하도록 권고했지만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 일평균 실제 관광객 수는 그 두 배를 넘는 5,600명으로 이미 한계치를 훨씬 초과했다. 더 큰 문제는 돈이 되는 관광 사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 일 평균 2만 2천명의 관광객 유치가 가능하도록 해발 3,700미터의 고산지대에 공항을 건설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유산의 지속 가능한 관리 보호가 가능할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세계유산의 관광 자원화는 사회,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여러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잘 관리되지 못할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유네스코는 2011년부터 세계유산과 지속 가능한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오고 있다. 이를 통해 유산지역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지속가능한 관광을 기획, 운영하도록 장려하고 이 과정에서 책임과 혜택을 함께 나눌 것도 독려해오고 있다.

특히, 2018년 유네스코가 발간한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속가능한 관광 교육자료(UNESCO World Heritage Sustainable Tourism Toolkit)』는 지역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관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 관리하기 위해 단계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잘 정리해두고 있다. 이 교육자료는 총 10단계에 걸쳐 각 단계별로 고려하고 실시해야 할 것들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해당 유산 지역에 대한 기본적 이해, 각 관련 주체별 희망사항에 대한 이해, 발전적인 변화를 위한 전략 개발, 거버넌스 체계구축, 참여와 소통 방식, 인프라 구축, 가치에 대한 인식제고와 공유, 태도 개선, 투자 유치, 모니터링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교육자료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답을 제공한다기 보다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계획하고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 참고할 수 있는 착안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아울러 세계 다양한 유산 지역에서 겪었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얻은 중요한 교훈들을 공유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관광을 계획하고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핵심적인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함을 보여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사례에서부터 다양한 이익 집단들 간의 대화와 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준 영국 에이브베리 사례까지 이 교육자료는 몇 가지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러 주체들 간의 지속적인 대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의사 결정과정에서 지역 공동체의 의사 반영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 그리고 보다 질 높은 관광사업 개발을 위해서는 관련자들의 인식 증진이 필요하다는 점, 즉 역량강화와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관광사업의 책임과 혜택,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최근 세계유산의 보호와 개발이라는 주제 하에 국내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교육자료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협력적 관계 구축과 지혜로운 해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해 본다.